metro Adieu 2014

메트로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제3126호 www.metroseoul.co.kr

말(馬)의 해… 어떤 말(言)을 남겼나

60년 만에 찾아온 '청마(靑馬)의 해'답게 2014년은 어느 해보다 수많은 말(言)들이 우리를 울리고 웃겼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파장이 대한민국을 등뜨게 했는가 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치유받은 국민도 많았다. 말(馬)의 해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말(言)들로 정리해 본다.

올 한해는 국민의 분노를 산 말들이 유독 많았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는 선내 방송은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다. 특히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우리 승무원들 지시만 따라서 행동하시면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안전하다"는 방송 인터뷰를 4년 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을 분노케 했다.

12월 5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마카다미아 서비스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무장에게 "너 내려"라고 고성을 질러 여론을 들끓게 했다. 특히 외신들까지 이 사건을 주요뉴스로 다루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했다.

팍팍해진 서민 삶을 가슴 아프게 드러낸 말들도 많았다.

2월 26일 집세와 공과금으로 70만원을 놔두고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가 남긴 메모 "정말 죄송합니다"는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12월 28일 복직을 요구하며 공장 70m 굴뚝에서 고공농성 중인 해고자의 아내는 "아직은 울지 못하겠습니다"는 편지를 남겨 우리를 눈물 짓게 했다.

◆"대한민국의 딸인게 자랑스럽다"

정치권에서 쏟아진 말들도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을 남겨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는 등 화제가 됐다.

지난 10월에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재계의 깜짝 행보도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지난 9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아니라 정부 땅 사는 것이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며 입찰에 참여한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재벌가 딸로는 처음으로 해군 장교로 입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 씨는 "대한민국의 딸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훈련 기간을 거치며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말해 '신선한 충격'을 남겼다.

◆국민 모두가 '완생' 되길

국민의 상처난 마음을 다독여준 말들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침략으로 끌려가 이용을 당했지만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말로 피해자들의 마음 상처를 치유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남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는 명대사는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용기를 주었다.

일흔들의 나이에 프로야구에 돌아온 노장 김성근 감독도 청와대 특강에서 "손가락질 피하면 리더 자격 없다"고 말해 큰 울림을 남겼다.

직장인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 신드롬을 일으킨 tvN '미생'의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라는 대사는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모든 국민이 '완생'을 꿈꾸게 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우울했던 2014 증시 국내 증시의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직원들이 색종이를 뿌리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개인 매매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12.27포인트(0.64%) 내린 1915.59로 한해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말의 2011.34보다 4.76% 하락한 수치다. 국내 20개 증권사는 2015년 코스피지수가 평균 1840~227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사회 지도층·기업의 '갑질'

세월호 참사

'명량' 사상초유 흥행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체제 재편

말 많고 탈 많은 '단통법'

불붙은 의료 영리화 전쟁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프란치스코 교황 첫 방한 한반도에 사랑의 온기

통합진보당 해산

"단발성 아닌 꾸준한 관심·지원 절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보사 정신 지향 내년에도 7대 사업 중점 추진

금융가 사람들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

"이웃의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실천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생활여건이 좋지 않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생명보험 정신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18개 생명보험사가 기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의 유석쟁(사진) 전무는 30일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생보재단은 지난 2007년 4월 생보사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으로 ▲어린이집 건립과 보육사업 ▲저출산해소·미숙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사회적인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등 7대 목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업계 전체가 사회공헌재단을 공동 설립해 운영하는 사례는 생보업계가 유일하다.

특히 생보재단은 단발성에 그치는 공헌사업이 아닌 설립 이후부터 연속적인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유 전무는 올해 생보재단에서 지낸 시간에 대해 "가치가 되던 나눔과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소망을 올해 조금이나마 이룬 것 같아 뿌듯하다"며 "우연한 기회에 들어온 생보재단에서의 활동에 자부심을 갖게 됐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어릴적 어머니를 여의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도 동대문상고, 서울교대를 나왔다. 이후 건국대학교 야간을 거쳐 8년 동안 교편을 잡은 이후 교보생명에서 27년을 지내다 계열사인 교보보험심사 대표이사를 지낸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인사다.

은퇴 이후에는 전경련 IMI, 고려대 AMP, 한국예술종합학교 CEO과정 총동문회 사무총장, 한국시니어연합, 재능기부협회 등에서 임원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다 올해 조우연한 기회에 생보재단에 들어왔다.

그는 생보재단을 통해 어린이집 건립·보육사업의 경우 올해 서울 성북, 경기 광명, 전남 여수 등 3개의 어린이집을 개관했다. 저출산 해소와 미숙아를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고위험임산부 537명에게 산전 검사비와 분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을 통해 특수식이와 의료보조용품을 75명에게 지원하고, 희귀질환교육, 염색체 가질환 진단 지원, 인문학교실 등을 운영했다. 자살예방을 위해 SOS생명의 전화 설치와 지매관련 종사자와 부양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매 심포지엄 개최 등도 올해 추진한 사업들이다.

유 전무는 "최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어머니가 그간 자녀와 겪었던 고통을 말할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며 "작은 규모라도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진행 중인 7대 사업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유석쟁(왼쪽) 생보재단 전무가 지난 18일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에게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보조용품을 지원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생보재단 제공

희귀난치성질환聯에 의료보조용품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의료보조용품 지원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원식에는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담도폐쇄증 척수수막류 환우 등이 참석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경우 배뇨와 배변장애가 많아 지속적인 기저귀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또 증상의 정도가 심해 자력으로 배변활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관장용 카테터가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생보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총 193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보조용품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45명에게 5000만원 규모의 의료보조용품을 지원했다.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질환관리를 위해 매일 소모하는 의료보조용품 지원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시청역에 '건강기부계단' 설치

생보재단은 지난 23일 서울시청역 5번 출구에 건강기부계단을 설치했다.

건강기부계단은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조명과 음악이 나오며, 기부금이 적립되는 계단이다. 또 일별·월별 이용자 현황을 집계한 전광판도 설치해 기부금 적립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역 5번 출구는 서울광장과 연결되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보행자들의 95%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어 계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작됐다. 기부금은 혼자서 걷기 어려운 아동들의 보행보조기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는 "즐겁게 계단 걷기운동도 하고 걷지 못하는 장애아동에게 걸음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할 수 있는 1석 2조의 건강기부계단을 시민들이 많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3일 서울시청역 5번 출구에 건강기부계단을 설치했다. (왼쪽부터) 김형기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수정 서울메트로 지장,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 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 변은경 서울메트로 역장이 서울시청역 건강기부계단 개통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생보재단 제공

메트로신문이 뽑은 '올 최고의 차'

2014년 국내 자동차시장은 신차가 쏟아져 소비자들을 즐겁게 했다. 올 한 해 메트로신문에서 시승기를 통해 소개한 신차 중 완성도가 높은 최고의 차를 선별했다.

/정의식기자 jeremy@metroseoul.co.kr

볼보 V40 D4 R 디자인

V40 D4는 폭스바겐 골프 GTD에 맞서는 볼보의 고성능 디젤 모델로, R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스포티한 분위기를 더했다. 몸을 착 감싸주는 V40의 시트는 동급 최고 수준. 최고출력 190마력 엔진은 8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려 강력하면서도 뛰어난 효율을 보여준다. V40 D4는 320대 팔렸으며 V40 전체 판매량은 446대다.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구형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성능과 패키지를 갖춘 뉴 C클래스는 나오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히 뛰어난 연비를 보여주는 C220 블루텍(디젤)의 인기가 높았다. 220 블루텍만 2015대가 팔렸으며, 쿠페를 합친 총 판매대수는 5007대다.

인피니티 Q50 하이브리드

올해 인피니티 성장의 일등공신인 Q50은 멋진 스타일과 경제성으로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호평 받았다. 특히 V6 3.5ℓ 364마력 엔진과 50㎾의 전기모터를 조합한 Q50 하이브리드는 뛰어난 핸들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의 쾌감을 맛보게 해준다. Q50 하이브리드는 23대 팔렸고 디젤을 포함해 2150대가 판매됐다.

현대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현대차는 연말을 앞두고 LF 쏘나타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했다. 156마력 GDI 엔진과 38㎾ 출력의 전기모터가 조합된 이 차는 복합 연비 17.7㎞/ℓ(17인치)의 경제성이 최대 강점이다. 시승회에서 대부분의 기자들은 20.0㎞/ℓ 넘는 연비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한 LF 쏘나타는 2015년 판매에 더 큰 기대를 걸 게 됐다.

BMW i3

i3는 지금까지 시판된 전기차 중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모델이다. 콘셉트카를 연상케 하는 실내 디자인과 BMW 특유의 주행감각, 전기차의 효율적인 성능을 두루 갖췄다. 전기모터를 뒤쪽에 장착하고 뒷바퀴를 굴리도록 해 차체 바닥이 평평하고, 그 덕에 뒷좌석 공간은 소형 미니밴 수준으로 넉넉하다. 다른 전기차보다 비싸지만 112대나 판매되며 인기를 누렸다.

기아 쏘울 EV

국산 전기차로는 기아 쏘울 EV가 단연 돋보였다. 레이 EV보다 향상된 최고출력 81.4㎾(111마력)의 전기모터와 27㎾h의 배터리를 장착했다. 최대토크는 28.0㎏·m로 쏘울 가솔린 모델(16.4㎏·m)의 두 배에 가깝고 디젤 모델(26.5㎏·m)보다도 높다. 4시간 완속 충전할 경우 전기료 1740원으로 169㎞ 주행이 가능하다. 11월까지 361대가 판매되어 국내 시판 전기차 중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한국인의 true friend
축
open

자동차

국내 완성차업계의 부진과 달리 수입차업계는 매월 승승장구하며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독일차의 강세는 올해도 두드러졌다. BMW(20.7%)를 필두로 메르세데스 벤츠(18.13%), 폭스바겐(15.52%), 아우디(14.48%) 등 독일 4개사가 모두 두 자리 수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이들 4개사의 점유율은 68.79%에 이른다.

그러나 일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혼다가 전년 대비 25.9% 포인트나 감소했으며 도요타는 12.8% 포인트가 줄었다. 대신 토요타는 렉서스 브랜드가 11.4% 포인트 늘어 토요타 브랜드의 부진을 만회했다. 혼다와 토요타의 부진과 달리 닛산과 인피니티는 전년도보다 큰 성장을 이뤘다. 닛산은 알티마와 쥬크 등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4.2% 포인트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인피니티는 Q50의 히트 덕에 무려 166% 포인트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부 브랜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브랜드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올해 수입차 판매는 20만대 가까운 기록을 나타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전체 승용 판매는 감소하지만 디젤 승용 판매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전년 대비 33.4% 증가한데 이어, 2014년 상반기에는 51.3% 증가했다. 승용 전체에서 디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1년 4%에서 2014년 15%로 11% 포인트 증가하며 고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대형 중심의 독일 4사의 비중은 전체 디젤 승용 판매의 65% 이상을 점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flyrar@

올해 재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한·중 FTA 타결이었다. 이로써 한국의 경제 영토는 세계 3번째로 넓어졌다.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최근 '한중 관계 미래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FTA 협상 타결

재계 1

올해 재계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일이다.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까지 타결하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2%와 자유무역을 하는 'FTA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이미 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타결된 만큼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 영토의 80%를 차지하게 됐다.

정부가 발표한 한·중 FTA 협의 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협정을 맺었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합의됐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이야기가 됐다.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50개 국가로 늘어났다. /박상훈기자 park@

삼성의 2조 빅딜·제일모직 상장

재계 2

재계 1위 삼성그룹은 올해 유독 많은 화제를 쏟아냈다.

먼저 지난달 말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문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한 '빅딜'을 꼽을 수 있다.

삼성그룹의 석유화학부문인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과 방산부문인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를 한화그룹에 넘기는 초대형 양수도 계약이었다.

계약 규모는 시장가격으로 1조 9000억원대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경영성과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전체 빅딜 규모는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복수의 주요 계열사를 한꺼번에 제3자로 매각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삼성은 삼성정밀화학·삼성BP화학 등 두 회사만 남기고 화학부문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한다. 삼성정밀화학은 신수종 사업인 2차 전지분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남기기로 했다.

삼성은 화학·방산 부문을 지분함으로써 그룹 구조를 전자, 금융, 건설·중공업, 서비스로 단순화했다.

한화그룹은 삼성의 석유화학과 방위산업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자산 규모를 50조원대로 늘리고 재계 서열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올라선다.

자산규모 37조원인 한화그룹은 자산가치가 13조원에 달하는 삼성 계열 4개사를 한꺼번에 인수함에 따라 한진그룹(39조원)을 추월할 전망이다.

삼성그룹의 두 계열사가 유가증권시장에 나란히 상장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삼성SDS와 제일모직은 청약 돌풍 속에 성공리에 상장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특히 두 기업의 상장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지난 18일 상장한 제일모직의 경우 사실상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다.

제일모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1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각각 8.37%, 이건희 회장이 3.72%를 보유해 오너 일가 지분이 45.56%에 달한다.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의 지주사 전환에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박상훈기자

부동산

주택 매매가·거래량 모처럼 회복

올해 가장 많은 1순위 통장이 몰린 부산 래미안 장전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모처럼 회복세를 보였다. 2·26주택선진화방안, 부동산3법 처리 지연 등 잿빛장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들이 효과를 냈다.

특히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렸다. 1순위에서 청약을 마친 단지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도 뭉칫돈이 유입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71%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2.0% 올라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진 5년간의 하락세를 마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비율 완화,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등의 규제 완화 조치가 망설이던 수요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집값 상승은 주택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91만 4000가구의 주택이 거래됐다. 이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거래량(91만4000가구) 이후 최고치로, 정부는 12월까지 100만 가구가량 거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책의 수혜가 강남3구와 재건축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지역·상품별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선우기자 2so@

올해 통신업계 최대의 이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통법은 시장을 혼돈에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큰 사진) 하성민 SK텔레콤 전 사장이 지난 3월 발생한 통신 장애 피해 보상 대책을 발표한 후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잇따른 악재… 속도 경쟁 지속

통신

올 한 해 통신업계는 다사다난했다.

올해 1월 황창규 회장으로 수장이 교체된 KT는 취임 한 달 만에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지난 3월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으로 인해 98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황창규 회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다음날 직접 나서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통신업계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3월 20일 오후 6시께 통신장애를 일으켜 6시간 가량 음성 통화와 데이터 송수신에 불편을 겪었다. 당시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은 발 빠른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에 나섰다.

올 한 해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통법은 이용자간 차별을 없애고 장기적으로 출고가 인하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법 시행 초반 출고가 인하 소식은 잠잠했고 이통사의 지원금 역시 예상보다 적게 지급됐다. 결국 시장은 얼어붙었고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은 잇따라 문을 닫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재영기자 ljy0403@

글로벌 생존, 안간힘

전자

올해 전자산업은 글로벌 기업 생존경쟁을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마케팅을 펼쳤다. 덕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은 기업이 있는 반면 벤처 신화를 일으켰던 기업들이 역사속으로 사라져가는 등 아쉬운 일들도 많았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작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를 앞세워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삼성전자는 올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며 실적 하락에 직면해야 했고 스마트폰의 실적 의존도가 컸던 만큼 그룹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공세가 거세지고 애플의 아이폰6의 역습을 맞아 힘든 경쟁을 펼쳤다.

반면 LG전자는 야심작 'G3'로 활짝 웃었다. 지난 5월 출시된 G3는 LG 계열사들의 역량이 집중된 제품으로 LG의 혁신성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출시 만 1년이 되기 전에 1000만대 판매는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웨어러블 기기가 급부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갤럭시 기어 출시에 이어 '기어2' '기어2 네오' '기어 핏' '기어S' 등 후속작을 잇따라 선보였으나 최근에는 가상체험 기기인 '기어VR'과 블루투스 헤드셋인 '기어서클'까지 내놓으면서 웨어러블 기기의 나양화를 주도하고 있다.

LG전자도 지난 7월 글로벌 판매에 돌입한 첫 웨어러블 기기 'G워치' 이후 두 달 뒤 원형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G워치R'을 공개하며 수익에 나섰다. 또 LG전자는 목걸이형 헤드셋인 '톤 플러스' 출시로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다양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성훈기자 ysw@

다음카카오 출범·e스포츠 성장

포털·게임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포털·게임업계에 2014년은 진통 속에 활로를 모색하게 한 시기였다.

10월 1일 다음카카오로 출범한 원조 포털 다음과 모바일 공룡 카카오의 만남은 IT업계 지각변동을 예고한 사건이었다. 합병을 통해 다음은 네이버에 빼앗긴 포털 왕좌를 탈환하겠다는 포부를, 카카오는 모바일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한 야망을 꿈꿨다.

하지만 다음카카오의 허니문은 오래 가지 않았다. 출범 직후 검찰의 카카오톡 메시지 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우리나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등으로 갈아탔다.

결국 이석우 공동 대표는 출범 2주만에 대이용자 사과를 해야 했다. 향후 감청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현행법 역행이란 꼬리만 남았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표는 메신저 상의 아동 음란물 유포 방지 혐의로 수지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

한편 게임업계 불황에도 게임 열기는 식지 않았다. 우리나라 게임업계 최대 행사인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4'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고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의 세계 대회 결승전은 서울에서 열리며 유료 관객 4만명을 기록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지스타 2014가 열리고 있는 11월 23일 부산 벡스코 B2C 입장을 위해 관람객이 긴 줄을 서고 있다. 이날 3만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경기 위축 유가 하락 최악의 한 해

철강·조선·석화

올해 국내 철강·조선·석유화학·정유 등 기간산업은 글로벌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으로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철강의 경우 수요 위축으로 인한 공급 과잉, 중국발 저가 철강의 범람으로 고전했다. 조선업 역시 극심한 수주 가뭄으로 실적 악화를 겪었다. 정유업계는 유가 급락으로 매진율이 떨어지며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를 봤다. 화학업종도 실적이 감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철강업체는 올해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공급 과잉, 중국산 철강 수입 증가의 '3중고'를 겪었다. 위기탈출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자산 매각, 합병,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올해 초 배럴당 100 달러를 상회했던 국제 유가는 현재 60 달러선이 붕괴된 상황이다. 하루가 다르게 유가가 떨어지며 정유업계는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봤다. 통상 원유를 들여오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원유를 정제하는 순간 이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유사들은 사업환경 개선을 석유화학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독일계 카본블랙업체와 협력을 통해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카본블랙 사업에 진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크릴산 및 아크릴에스테르 분야에, GS칼텍스는 탄소소재와 바이오부탄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적 악화를 보인 석유화학 업계는 주력업종 강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특히 한화케미칼은 지난달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을 인수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한화솔라원과 큐셀의 합병을 통해 태양광 사업 규모 1위로 올라섰다.

/김은희기자 ehkim@

KB사태·예금금리 1% 시대… 힘든 한 해

은행권

2014년은 어느 때보다 은행권이 힘든 시기를 보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은행들은 저금리 장기화 기조로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고, 도덕적으로도 큰 위기에 처한 한 해였다.

우선 KB금융 회장과 국민은행장의 갈등에서 시작된 이른바 'KB금융 사태'는 올해 은행권의 가장 큰 화두였다. KB사태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과 관련해 발생한 지주 회장과 은행장, 사외이사 등의 갈등으로 촉발됐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등이 실으로 드러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주전산기 전환사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결국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동반 사퇴하는 비극을 맞이했다. 이 사태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사퇴로 이어졌고, 내년 3월 KB금융 사외이사 전원이 퇴진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B금융지주의 새로운 선장에 윤종규 회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illegible] 은행의 경영권 지분(30%)과 소수지분(26.97%) 분할매각 무산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민영화가 무산됨에 따라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연임을 포기하고 30일 오전 이임식을 갖고 38년간 은행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어 이날 오후 이광구 우리은행장 내정자가 제49대 행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이 행장은 ▲민영화 달성 ▲강한은행 만들기 ▲금융산업의 혁신선도를 3대 경영 목표로 제시하고, 은행 성장의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내딛었다.

[illegible] 이슈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해 2%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 저금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 확보도 단보 상태다. 국내 은행 수익성은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으나 3분기 총자산수익률(ROA)이 0.36%에 머물러 최근 10년간 평균치(0.65%)를 크게 하회했다.

[illegible]

수익성 악화와 인적 구조의 고령화로 기존 인력의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다 적자 점포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점포 통폐합과 인력 감축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이광구 신임 우리은행장이 제49대 은행장에 공식 취임했다. 이 신임 행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민족 은행으로서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왕기종인 우리은행을 고객과 국가경제에 큰 힘이 되는 강한은행으로 만들어 반드시 민영화를 이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행장은 특히 24·365 프로젝트 를 추진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경쟁력을 높이도록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손진영기자 son@

증권업계

구조조정 한파로 4천여명 떠나

'공룡 증권사' NH투자증권 탄생

증권가는 수년간 꽁꽁 얼어붙은 업황에 한 줄기 희망이 싹트는 한 해를 보냈다. 증권가 등 계열과 구조조정으로 수천 명의 직원이 일터를 떠났고 지점 수도 대폭 줄어들면서 한파가 불어닥쳤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후강퉁'으로 중국 투자 길이 활짝 열렸고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이 모처럼 흥행 열기를 이어가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았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대신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상당수 증권사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여의도를 떠났다.

증권사 통폐합으로 지각변동도 일어났다.

새해에 접어들면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통합한 자산 42조원 규모의 'NH투자증권'이 첫 발을 내딛는다. 국내 1위의 '공룡 증권사'가 탄생한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의도를 다시 뜨겁게 달구려는 소식도 이어졌다. 중국본토 투자 길을 여는 '후강퉁' 제도가 지난 11월 중순 시행을 결정했다.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간 교차거래를 통해 외국인들도 중국본토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주식시장 발전방안'이 지난 11월 말 발표됐다.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과 가격제한폭 15%→30% 확대, 파생상품 확대, 기관 역할 강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김현정기자 [illegible]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쳐 자산 42조원 규모의 국내 1위의 '공룡 증권사'인 'NH투자증권'이 탄생했다.

지난 5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자살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보험업계

자살보험금 미지급 파문

이수창 생보·장남식 손보협회장 취임

보험업계는 올 한해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텔레마케팅(TM)영업중단을 시작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 등 굵직한 사건으로 요동쳤다.

가장 큰 이슈는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NG생명을 제재하면서 촉발된 이 사태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10개사가 당국의 지급명령을 거부하고 현재 민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저금리 기조로 불황을 겪은 생보사들은 '빅3'인 삼성·교보·한화생명을 시작으로 올해 대거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민간출신의 생명·손해보험협회장도 선출됐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논란으로 지난 8월 손보협회장에 장남식 LIG손보 고문이, 12월에는 이수창 삼성생명 전 사장이 생보협회장으로 추대됐다. SGI서울보증보험도 국민은행 출신 김옥찬 사장을 선임했다.

그룹의 기업어음(CP)자금 확보를 위해 매물로 나온 LIG손보의 새 주인도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를 승인했다. 지난 8월 승인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이다.

/김형석기자 khs[illegible]

카드업계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등 '수난'

'빅데이터' 신성장 동력에 새바람

올해 카드업계는 연초부터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를 보냈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지구축, 요우커의 급격한 성장 속에 체크카드와 간편결제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변화의 바람도 불었다.

지난 1월 초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3사에서는 1억 400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아울러 신한·국민·농협카드의 POS단말기를 통해 20만건의 개인정보가 해킹되는 등 정보 보안와 관련된 우려가 크게 확산됐다.

이번 사고로 관련 카드3사는 3개월 영업정지를 당했고 CEO들은 옷을 벗었다.

전반적인 카드시장의 흐름은 체크카드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결제시스템 변화로 이어졌다.

특히 소액으로 자주 결제하는 '소액다건' 패턴 속에서 체크카드 승인건수는 10월 전체 카드승인금액의 36.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빅데이터'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은 위치와 개인정보에 ICT를 입힌 '코드나인'과 '링크', '비콘' 서비스를 내놓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illegible]기자 [illegible]

지난 10월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에서 롯데카드 고객들이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인 '비콘(beacon)' 시범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있다. /롯데카드 제공

metro global economy

죽음의 공포 속에 피어난 희망

metro global

희비 엇갈린 유통업계

물건너 온 '블랙프라이데이' 지갑 털다

올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직구 열풍이 거셌다. 이에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등 해외 할인 행사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이 모아졌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해외 자본의 유입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주요 업체가 해외 투자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장의 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올 연말 쇼핑 시즌에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에서 건너온 행사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었다. 이에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 업계는 11월 중순부터 블랙프라이데이를 내걸고 해외 상품 파격 할인에 들어갔다. 행사 기간 동안 해외 상품 판매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가량 성장했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올해 4조원 대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단기간 성장하면서 3사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경쟁력 강화와 외형 성장 일환으로 투자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쿠팡이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티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루폰은 추가 투자 유치에 나섰다.

/김수정기자

불황 속 모바일 쇼핑·해외직구 급부상

2014년 국내 유통업계는 희비가 엇갈리는 양극화 현상이 예전보다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

최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발간하는 유통 전문지 리테일매거진 이 '2014년 유통업계 10대 뉴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내수침체 장기화와 세월호 여파로 소비 불황 지속'이 1위 뉴스로 선정됐다. 이어 '모바일 쇼핑시장 증가'와 '해외 직구 1조원 시대, 거래국가·품목 다양화'가 뒤를 이어 주요 이슈로 꼽혔다.

이밖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불황 여파로 대형마트 2년 연속 매출 역신장 ▲온·오프 융합하는 옴니채널 열풍 ▲가격대비 가치 따지는 가치소비 트렌드 정착 ▲고객 소비패턴 분석하는 빅데이터 경영 본격화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면세점 호황 ▲세계 최대 가구 인테리어 기업 이케아의 한국 진출 ▲이마트의 편의점 시장 진출로 편의점 업계 상생 가열 등이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 10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롯데월드몰이 논란 속에 개장한 것과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간편식 시장의 확대, 건강 지향에 따른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상승세 지속, 제2의 국민 통조림으로 급부상한 연어캔 시장 급부상, 탄산수 시장의 고속성장과 생수 시장의 인상적인 성장 등이 화두가 되기도 했다.

/양성원기자

온라인 쇼핑

유통업계

TV 홈쇼핑

오프라인 유통

잇단 홈쇼핑 비리… 검찰 이어 공정위까지 조사

올해 홈쇼핑업계는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다. 각종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대표가 물러나기까지 했다. 한편으로는 성장도 있었다. TV 방송 매출이 하락하는 반면 모바일 채널의 약진이 이어졌다.

6개 사 중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낸 업체는 롯데홈쇼핑이다.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까지 납품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었다.

NS홈쇼핑은 일명 '카드깡'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특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 홈쇼핑 전 직원 2명은 카드깡 명의로 발생한 허위 매출을 유인한 것으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업계 전반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사에 대해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올해는 모바일 매출 강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TV 상품을 모바일로 구매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업계는 TV 상품을 모바일에서도 판매하는 등 채널 간 연계와 함께 핫딜 마케팅 등을 통해 모바일 채널로 소비자를 유입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미디어 셀러에 웃고 도서정가제에 울고"

올해 출판 시장은 미생,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등 미디어 셀러 열풍이 이어졌다. 또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11월부터 시작돼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전자책 시장은 베스트셀러 트렌드가 종이책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미디어 셀러 강세가 두드러졌다. 실제 교보문고에서는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에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 1위에 올랐고 예스24에서는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미생-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완간 박스세트'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개정 도서정가제의 영향으로 온라인 서점 판매량이 하락하기도 했다.

종이책에서 베스트셀러였던 도서가 전자책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미디어의 영향, 영화화된 원작소설이 상위권을 형성하는 등 종이책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김수정기자

엔제리너스커피, 나눔 활동 사회공헌 앞장

국내 각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가 커피전문점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개최된 '도시 농업 박람회'에 참가해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친환경 퇴비 3만여 개 분량을 유기농 퇴비를 카본으로 재활용해 모종과 퇴비를 함께 증정했다. 친환경 퇴비는 소규모 도시농가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 매장에서 커피 추출 후 생기는 부산물인 커피찌꺼기를 모아 사회 환경 단체 기업 '에코11'과 함께 퇴비생산 기술을 적용해 만들었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지난 11월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공원에서 열린 '2014 해피런 레이스'에 참여해 사회공헌을 실천했다. 이 행사는 오리엔탈 판매 수익을 기부하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나눔 페스티벌로 300만 원 상당의 제품교환권을 제공했다.

이동형 카페 차량의 기동성을 활용한 나눔의 손길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등 지역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송파구청과 함께 바리스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기부 행복한 중학교'의 참가 학생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난치병 어린이 소원성취기관인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과 협약을 맺고 6개월 동안 매달 1명의 환아 소원을 들어주는 '엔젤 Wish Day'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6일에는 난치병 환아 소원성취 협약을 기념해 "천사와 함께 희망 날개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미니 콘서트와 풍선 나눔 이벤트를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양성원기자

라이프스타일·놈코어… 올 패션업계 강타

아웃도어 정체기 맞고 SPA는 성장세 이어져

2014년은 관둔한 저성장 기조는 패션업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한동안 성장가도를 달리던 아웃도어 시장은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SPA(제조·유통 일괄형 의류) 브랜드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아웃도어의 경우 세분화된 소비자에 맞춰 아동 여성복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간 누적된 재고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은 신상품 판매 부진과 함께 아웃도어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SPA 브랜드는 성공이 검증된 국내 시장에서 패밀리 브랜드를 도입하는 등 2차 공습을 시작했다

H&M 계열의 코스(COS)가 국내에 진출해 시장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조프레시 등도 글로벌 시장에서 얻은 노하우와 마케팅 전략으로 국내 패션시장을 장악하려고 준비 중이다

◆ 패션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

섬심패션연구소는 국내 패션 시장은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패션과 먹거리 위주에 집중됐던 소비문화가 삶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라이프스타일 영역이 조명을 받고 있다

유통 아이템과 패션 브랜드 자체에 집중됐던 이전과는 달리 삶을 살아가는 방식 태도 소비습관이 문에는 라이프스타일의 한 부분으로 패션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한 공간에서 다양한 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개념의 '편집 매장'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0꼬르소꼬모 서울 비이커 등 패션을 중심으로 생활용품 영역까지 확장한 라이프스타일 편집 매장이 대표적인 예다

◆ 놈코어 트렌드 인기

올해 최고 키워드는 '놈코어'였다 노멀(Normal)과 하드코어(Hardcore)의 합성어로 '트렌디한 것을 따르지 않는 트렌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놈코어 스타일은 실용성에 기반을 두고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일상적인 패션으로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커버그의 패션처럼 1990년대에 대량생산된 아이템들이 해당된다 주요 아이템으로는 화이트 셔츠 청바지 블레진 스웨트 셔츠 등이 꼽힌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의사들 14년만에 거리로…

2014년 국내 보건의료계는 무척이나 힘이 든 1년을 보냈다 특히 정부와의 갈등은 그 수준을 넘어 전쟁을 방불케 했다

먼저 전국 의사들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거리로 나왔다 현 의료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 등 의료영리화에 따른 반발이었다 특히 의사들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정책을 두고 '동네의원 죽이기'라며 분만을 터뜨렸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되면서 보건의료계는 정부와의 전쟁을 재천포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며 이들의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복지부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싼얼병원을 건립하려다 무산된 사건이 밝혀지면서 복지부는 모든 보건의료계 관계자의 질타를 받았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20명이 넘는 수사인력이 들이닥쳤는데 이들이 수술실까지 들어가면서 문제가 커졌다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있는 수술실에 들어와 조사를 진행해 의료계의 공분을 샀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환자를 위한다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 등 3대 비급여 정책으로 병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제약업계도 정부와 끝없는 리베이트 전쟁을 벌였다

/황재용기자 hsoul38@

'요우커' 돌풍… 화장품 싹쓸이

中 수출도 매년 10%씩 가파르게 성장

올해 국내 화장품업계의 최대 키워드는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다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요우커들이 국내 뷰티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르는 중국인 관광객 10명 가운데 약 7명은 화장품을 구매할 정도로 한국 제품의 인기가 높다

이 가운데 쿠션 제품을 비롯해 달팽이크림·마스크팩 등이 불티나게 팔렸다

쿠션 팩트의 원조 브랜드 아이오페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다 해당 제품은 2008년 3월 첫 출시 이후 올 상반기 단일 품목 때출 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롯데면세점이 집계한 주요 화장품 판매 순위에 브랜드숍 화장품으로는 유일하게 상위 5위권 안에 포함됐다 11월 한 달 동안 50만 개가 판매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다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액도 연평균 10%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연구위원은 '중국 화장품 시장 아직 성장 초기 단계' 보고서에서 "화장품의 중국 수출액이 올 10월까지 3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4% 늘어 올해 화장품 무역수지가 첫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각 브랜드들은 기초화장품에 밀려 한동안 소외됐던 색조 화장품 시장 강화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계열사 에뛰드의 색조 브랜드 에스쁘아 사업부를 분할해 내년 1월 1일자로 독립법인을 신설한다 독립법인 신설을 통해 에스쁘아는 차별화된 메이크업 전문 서비스와 완성도 높은 메이크업 제품에 집중하며, 국내 메이크업 1위 전문 브랜드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은 올해 9월 자사 색조전문통합 사업부문인 더컬러랩을 통해 '메가 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매 계절마다 유행할 화장품 색상을 예측해 제시하고 이에 맞는 색조화장품 생산을 늘리는 것이다

/박지원기자

꽃보다 여행?… 울다 웃은 업계

사건·사고 많았지만 자유여행 대세로

대체휴일제 실시와 연이은 황금연휴 등 총 67일의 휴일이 있던 올해는 여행을 떠나기에 최적의 시기였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등 시건 사고가 여행업계의 발목을 잡았다

여행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5월과 6월 여행업계는 침울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몰 후 사회 전체적으로 깔린 애도 분위기로 여행 수요가 주춤한 것이다 또 태국 반정부 시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퍼진 에볼라 바이러스 등도 여행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그래도 여름휴가부터 여행업계에는 다시 생기가 솟아났다 유럽·대만·체코 등을 배경으로 펼쳐진 TV 예능 프로그램과 연저 효과로 유럽과 먼 여행지가 증가했고 패키지여행보다는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유여행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브라질 월드컵과 '꽃보다 청춘'의 영향으로 중남미가 새로운 여행지로 각광받았고 크로아티아 등 생소한 여행지도 해외여행의 단골 메뉴가 됐다

이와 함께 패키지 상품 대신 자유여행을 위한 항공권이나 에어텔 판매가 인기를 얻었다 반면 여행업계는 올해 출국자 수가 지난해 1485만 명보다 8% 정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황재용기자

"동료와 함께한다는 마음, 행복한 삶 되세요"

올 하반기 직장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tvN 금토드라마 '미생'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지난 20일 종영됐다. 드라마 '미생'은 원작에서처럼 '해피 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미생'이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 공감과 위로였다. 시청자들은 매회 드라마 속 캐릭터에 감정을 이입해 울고 웃었다. 특히 부하 직원과 상사의 갈등, 비정규 계약직의 애환, 직장 내 성차별, 불합리한 조직문화 등을 사실적으로 풀어내며 직장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미생'을 통해 안방극장을 찾았던 배우 임시완·강소라·김대명·박해준이 2014년 치열한 한 해를 보낸 직장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혜영기자 k...@metroseoul.co.kr

'미생'이 직장인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임시완(영업3팀 장그래)

"직장인들에게 그 어떤 말을 해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미생'이 전하고자 한 이야기는 당신 혼자 있지 않다는 것, 힘든 사람은 당신 혼자 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모두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옆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며 부둥켜 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은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미생'에 임하기 전까지는 어렴풋이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직장인의 애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구나' 생각 이상으로 힘들구나, 감히 내가 공감한다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이구나'라고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조금이나마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소라(자원팀 안영이)

"글쎄요. 어떤 말을 드려야 힘이 될까요? 잘 지내세요? (웃음) 처음에는 오히려 일상이 너무 힘드니까 '미생'을 안보실 줄 알았어요. 우리 드라마를 보면 또 다른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더 씁쓸하실 줄 알았죠. 원래 드라마를 보면서 현실을 다 잊고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게 하는데 '미생'을 보면 현실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아리지리 제이잖아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힐링을 받으셨다고 하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2015년, 또 힘든 해가 기다리고있지만 그래도 올해 '미생'을 보면서 느꼈던 소중한 감정들, 처음 마음 먹은 의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쉬는 순간도 배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워지는 만큼 채워지는 것이라 생각해요.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개인적인 행복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돈 많이 버시고 힘내세요!"

◆박해준(영업3팀 천관웅 과장)

"'미생'에서 천과장 역할을 소화하며 소위 원 속과의 '싱크로율' 욕심도 처음에는 내봤어요. 하지만 우리 사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어제 봤던 사람들을 오늘 또 보게 되고, 늘 보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옆에 함께 일하고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말 없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거지'라는 관심조차 없는 문화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늘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나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 오늘만큼은 '커피 한 잔 드실래요'라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은 해보지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늘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나를 상대하는 상대방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 한해 너무 바쁘게 지냈지만 그래도 좋지 않았습니까? 내년이 더 기다려집니다."

◆김대명(영업3팀 김동식 대리)

"모든 직장인들, 특히 제 나이 또래인 대리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리님들은 현재 시점이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스펙터클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결혼부터 경제적인 문제, 부모님 걱정, 회사에서 상사와의 갈등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치어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미생의 삶을 살며 완생으로 나아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본인의 행복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의 차이겠지만 회사에서의 성공이든 가정에서의 성공이든 기준은 다 다를 테니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현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tcast

이 프로그램은 마이리스트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tmtcast.com

슬픈 이별… 아쉬운 작별… 반가운 만남… 2014년 연예계

패션기업 사회공헌은 진화중

가지 수첩
박 지 원
<생활유통부 차장>

올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침울한 분위기 속에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한 기업들이 유독 많았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패션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이 어느 때보다 빛난 한 해였다.

연말 연탄배달, 기부금 전달 등 단편적 봉사 혹은 '보여주기' 방식에서 탈피해 대중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으로 진화되는 모습이다.

형지는 '허그 캠페인'으로 포옹을 통해 국민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다. 관련 제품을 내놓고 고객을 초대하는 이벤트와 사진전을 여는 등 현장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디수의 여성복 브랜드를 가진 그룹인 만큼 인터넷 포털 다음과 손잡고 저소득 여성 가장의 자녀교육비 후원을 위해 네티즌 모금을 벌이기도 했다.

기부를 테마로 한 작은 패션매장도 등장했다. 제일모직은 올가을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플래그십 스토어 '하티스트 하우스'를 열었다. 이 매장에서 팔리는 패션·생활 용품의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소비자의 즐거운 쇼핑이 기부로 연결되는 공간인 셈이다.

쌤소나이트는 캐리어가 백팩이 한 개 팔릴 때마다 국내외 불우한 아동들에게 가방 한 개를 전달하는 등 소리소문 없이 착한 일을 하는 패션업체들이 눈에 크게 늘었다.

사실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설령 실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가운데 평소 구매만으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패션업계의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은 반갑기만 하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5년에는 더 많은 패션기업들이 착한 소비와 나눔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땅콩회항' 구속영장 발부

법원 "사안 중대·조직적 은폐 시도"
증거인멸 주도 혐의 상무도 구속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범죄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폭행 여부와 램프리턴이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사후 사정을 여상무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 구인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재희기자 hsg@metroseoul.co.kr

뉴스&뉴스

내년 공무원 보수 3.8% 인상된다

●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되고, 대통령 연봉도 처음으로 2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 등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는 1억5874만1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의협 "S병원, 신해철 위축소 수술한 듯"

● 대한의사협회는 '故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 의료 감정을 도출한 결과 S병원이 위주름 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위원회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감정 결과를 관할 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회신했다고 전했다.

중고교 입학 5월초까지 가능해져

●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정이 폐지되며 거주지를 이전하지않고 고등학교에 편·입학하는 길도 열린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년 초에서 30일이 경과하면 중·고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체 교육과정에서 3분의 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이나 5월 초에 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졌다.

한자리에 모인 총리 부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가운데가 3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3인 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천, 4년만에 또 '구제역 악몽'

돼지농장서 발병

경기도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천시의 돼지 농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도에 통보했다.

수도권 구제역 발병은 4년 만이다. 2010년 12월~2011년 1월까지 경북 안동발 구제역이 경기 지역으로 확산한 뒤 그동안 구제역은 없었다.

이 농장은 29일 오후 3시께 돼지 20마리에서 수포, 출혈 등 증세가 나타나 구제역이 의심된다고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했다. 농장은 돼지 50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방역당국은 의심 신고 당한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 20마리와 같은 돈사에 있던 12마리 등 총 32마리를 안락사시킨 뒤 땅에 묻었다. 추가 살처분 여부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km 안에 있는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 농가 66곳 2만1000마리의 이동이 3주간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 주변 10곳에 이동 제한 초소를 설치, 소독을 강화했다.

/조현정기자 jh@

동해안 해맞이 영동고속도 오늘 오후 6~10시 가장 혼잡

동해안 해맞이 관광객으로 인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최대 혼잡 시간이 31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예상됐다.

30일 도로공사는 이와 같이 발표하며 2015년 1월 1일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는 원저 IC 부근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이날 오후 10시 이후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예상소요시간은 서울→강릉 5시간 10분, 강릉→서울 7시간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가장 혼잡하는 곳길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만종→여주 35.4km,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여주→강천 18.2km 등 6개 구간 69.7km이다.

공사는 적금졸음쉼터, 대관령 1터널 관리동, 평창휴게소 등 8개소에 임시화장실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출 전망이 좋은 영동고속도로 원계 IC~강릉 구간과 동해고속도로 망상 IC~옥계 IC 구간의 갓길에는 교통관리조, 동해 옥계휴게소에는 주차관리원 안전순찰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주영기자

건보공단 노인요양보험 '가장 잘한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14년 정책평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6일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40개 대표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 정도, 실현 가능성, 투명성,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하여 종합 분석한 결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유주영기자

삼성·LG, CES서 TV 경쟁 한판

market index <30일>

코스피	코스닥
1915.59 (-12.27)	542.97 (+3.76)

금리	환율
2.10 (-0.030)	1095.00 (-2.90)

스마트 TV OS 삼성 '타이젠' vs LG '웹OS 2.0'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 TV 시장 선점을 위해 진검승부를 펼친다.

두 회사는 TV쇼로 불리는 CES 전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을 대거 내놓는다. 특히 화질경쟁과 함께 새로운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제품을 전면에 내세운다.

TV 화질 경쟁 승부수는 '퀀텀닷(Quantum dot, 양자점)'이 주요 무기다. 각 사가 자체 개발한 '타이젠' '웹OS 2.0'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예정이다.

퀀텀닷은 전압이나 빛을 가하면 크기에 따라 각각 다른 색을 내는 나노미터(nm) 크기의 반도체 결정으로 이를 필름형태로 LCD TV 백라이트에 적용한 것이 퀀텀닷TV다. 색재현율이 기존 LCD TV보다 20~30% 이상 높다.

LG전자는 '와이드 컬러 LED' 기술을 적용한 울트라HD TV도 함께 선보인다. 이 제품은 백라이트의 LED 형광체 구조를 변경하고, 성능이 향상된 컬러필터를 적용해 색재현율을 대폭 높였다.

삼성전자는 아직 퀀텀닷 TV를 출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삼성전자가 기존 UHD TV 라인업에 퀀텀닷을 적용한 제품들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화질 경쟁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스마트TV의 OS(운영체제)를 두고 자존심 대결에 나선다.

우선 삼성전자의 타이젠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가 지난 2012년부터 인텔 등 12개 업체와 함께 공동개발하고 있는 멀티플랫폼이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스마트홈을 내세운 만큼 타이젠 OS의 성공여부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스마트홈 구축시 타이젠 스마트 TV가 집안 가전제품들을 제어하는 중추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웹OS 2.0'을 탑재한 스마트 TV를 선보인다. 기본 성능은 강화와 속도를 향상시켰다. 홈 화면 로딩시간을 최대 60% 이상 줄였고, 앱을 전환하는 시간도 대폭 단축됐다. 홈 화면에서 유튜브에 진입하는 시간은 약 70% 가량 줄어들었다. /김성훈기자 ysw@metroseoul.co.kr

'행운의 골드바' 3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에스티 매장에서 모델들이 '행운의 골드바'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구인구직도 터치 시대

새해에는 모바일 채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30일 취업포털 잡코리아 통계에 따르면 모바일로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이 매년 크게 상승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모바일을 통한 입사지원 비중은 1.2%였다. 하지만 스마트폰 대중화가 시작되면서 2011년 10.2%, 2012년 16.2%, 2013년 21.7%로 점점 증가하다 올해는 27.9%까지 치솟았다. 구직자 10명 중 3명은 모바일을 통해 입사지원을 한 셈이다.

연령별 모바일 입사지원율은 20대가 34.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28.7%, 40대 20.7%, 50대 18.2% 순이었다. 직무별로는 사무실 내근직에 비해 외부에서 일하는 직업의 모바일 입사지원율이 더 높았다.

모바일을 통한 구직 활동은 서울·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충북(37.5%)이 모바일 구직률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광주(37.1%), 충남(36.8%)이 뒤를 이었다. 서울(25.1%), 경기(28.4%)는 20%대에 머물렀다. 이는 지방이 구직자 수에 비해 일자리 정보가 부족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좌장호 잡코리아 이사는 "모바일 구인구직은 이미 취업포털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모바일 취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모바일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구직은 3000% 이상 증가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공고 조회수도 한달에 4000만건을 넘나든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여영걸 알바몬 이사는 "아르바이트는 정보력과 빠른 지원이 관건이다. 이 때문에 수시로 접속해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구인구직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오세화기자 oneal@

담뱃값 인상 코앞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등에서 담배 판매가 급증했고, 일부 편의점 담배 진열대 등에서 발길을 돌리고 담배를 구하러 편의점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애연가가 많아졌다. 30일 오후 한 편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 앞에 가격 변동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한·일 기업 부진 미·중 기업 약진

삼성전자 24→29위·도요타 20위 제자리

올해 한국과 일본 간판 기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중국 기업은 약진했다.

30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수는 4개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보다 1개 줄어든 것이다.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는 24위에서 29위로 후퇴했다. 현대차는 321위로 지난해보다 116위 떨어졌다.

지난해 각각 416위와 422위를 기록한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는 500대 기업에서 탈락했다.

SK하이닉스(469위→377위)의 순위가 급상승했고 한국전력(476위)이 새로 명단에 들어왔다.

일본 기업들도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1등 기업인 도요타가 지난해와 같은 20위로 자존심을 지켰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로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

미쓰비시도쿄파이낸셜그룹(87위→104위), 소프트뱅크(65위→118위), NTT도코모(135위→142위), 재팬 토바코(144위→178위), 혼다(124위→185위) 등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중국은 500위 안에 든 기업 수가 39개로 전년 대비 17개 증가했다. 세계 10대 기업에 2곳이 선정되기도 했다.

페트로차이나가 지난해보다 7계단 오른 7위를 기록했고 올해 상장된 알리바바는 10위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공상은행(18위→11위), 건설은행(26위→22위), 농업은행(45위→30위), 중국은행(52위→35위) 등 은행들도 약진했다.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8곳이 미국 기업이었다.

애플이 1위를 지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위에서 2위로 점프했다. 버크셔 해서웨이(5위→4위), 존슨앤드존슨(7위→6위), 페이스북(39위→21위) 등도 순위가 상승했다.

엑손모빌(2위→3위), 구글(3위→5위), 월마트(8위→9위)는 순위가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박성훈기자 zen@

수도권 서부, 미분양↓

올 한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이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곳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3만9703가구로 조사됐다. 올 초(5만5576가구)보다 1만5873가구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 김포시가 2570가구로 가장 많이 소진됐다. 1월 3247가구에 달했던 김포 미분양 아파트는 11월 677가구까지 줄었다.

이어 ▲경기 고양시 1963가구(3784→1821가구) ▲인천 연수구 1706가구(2316→610가구) ▲경기 파주시 1664가구(2282→618가구) ▲인천 남구 1278가구(2494→1216가구) 순으로 판매됐다.

주목할 점은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판매된 상위 5위 지역이 수도권 서부지역에 속해 있다는 데 있다. 이 5개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누적된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아 왔지만 올해는 전국 평균(32.2%)보다 큰 51.2~79.1%의 감소율을 보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경우 미분양 무덤으로 낙인찍히며 분양하는 단지마다 실패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었다"며 "올 들어 정부 대책, 개발호재 등에 힘입어 분위기가 바뀐 뒤 신규분양에도 성공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illegible]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덕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91
[illegible]

'국보급 스타' 김연아·'캡틴' 박지성 전설로…

2014년 스포츠계는 유난히 분주했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브라질 월드컵과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대규모 경기들이 연이어 펼쳐졌다. 기쁜 일도 안타까운 일도 많았다. 영원할 것 같았던 스포츠 스타의 은퇴 소식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겼지만 또 다른 스포츠 스타의 활약으로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2014년을 빛낸 스포츠 스타들을 모았다. /정병호·김학철기자 so-min@metroseoul.co.kr

◆ 피겨 여왕의 금빛보다 빛난 눈물의 은퇴

지난 2월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마지막 무대로 삼았던 '피겨 여왕' 김연아(24)는 은메달을 목에 걸며 빙판을 떠났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점(228.56)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따낸 김연아는 한국을 넘어 세계 피겨 스케이팅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 소치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리며 화려하게 은퇴할 수도 있었지만 석연찮은 심판 판정으로 대회는 물론 김연아 본인에게도 '옥의 티'를 남겼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판정이었다. 외신들도 '스캔들'이라는 표현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도 국제빙상연맹(ISU)에 이의를 제기하며 힘써봤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비록 얼룩진 마무리였지만 김연아의 업적은 금빛보다 더 빛났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보급 스타'로 그의 이름은 여전히 기억될 것이다.

◆ 굿바이, 영원한 캡틴

영원한 캡틴도 은퇴를 피할 수는 없었다. 박지성(33)은 올해 5월 14일 무릎 부상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박지성은 성실성 하나만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로 도약한 한국 축구의 자랑이었다. 유럽 최고의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보여준 활약상은 '변방'에 머물러 있던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한껏 드높였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한국선수 첫 득점, 한국인 첫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 아시아 선수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 아시아 선수 첫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이 박지성이 유럽 무대에서 남긴 발자취였다. 무엇보다도 박지성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특유의 성실성으로 위기를 이겨냈다. 그는 진정한 '보통 사람들의 스타'였다.

◆ 한국 여자 골프의 새로운 희망

2014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역사는 김효주(19·롯데)가 새롭게 썼다. 김효주는 2014년 시즌 KLPGA 투어 상금왕, 다승왕, 최저평균타수상(70.26타), 대상 등 4개 타이틀을 독식하며 절대강자 자리에 올랐다. 특히 상금 부문에서는 총 12억898만원을 거둬들이는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시즌 참가한 23개 대회 중 5개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그 중에서도 3승은 메이저 대회인 한국여자오픈,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등에서 거뒀다. 김효주는 2015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기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 코리안 몬스터, 메이저리그를 사로잡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 14승을 기록하며 변함없음을 펼쳤다. 빅리그 신인이었던 지난해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는 올해도 14승 7패에 평균자책점 3.38을 찍으며 다저스의 제3선발로 우뚝 섰다. 부상으로 시즌 막바지 선발 로테이션에서 이탈하기도 했지만 돌아온 포스트시즌에서는 6이닝 1자책점으로 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다만 부상자 명단에 자주 이름을 올린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류현진의 내년 시즌 목표는 '200이닝'이다. 야구 팬들도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3년차를 맞아 15승 고지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

◆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200안타 신기록

올해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스타는 단연 서건창(25·넥센 히어로즈)이었다. 서건창은 그 동안 꿈의 기록으로 여겨진 한 시즌 200안타 기록을 세우며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바람의 아들' 이종범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이 1994년에 세운 196안타였다. 서건창은 이종범의 고향인 광주에서 197안타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데 이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안타 2개를 추가해 201안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만들어냈다. 무명에 가까웠던 신고선수 출신인 서건창은 지독한 열정으로 2012년 신인상을 받은데 이어 올 시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선정은 그의 길고 길었던 무명 시절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 리듬체조 요정, 빛을 발하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는 각종 국제 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2014년을 빛냈다. 지난 4월에 열린 리스본 월드컵에서 손연재는 5개의 금메달 중 4개를 휩쓸면서 한국 리듬체조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9월에 열린 터키 이즈미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투프 부문 동메달을 땄으며 이어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어느 해보다 빛나는 한 해였다. 지난 21일 러시아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손연재는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11년도 건전음주를 위한 광고 공모전 수상작 (대상)

2015년에도 절주하는 당신이 챔피언 입니다

많이 마신다고 해서 최고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량에 맞춰 마실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술자리 문화의 선두주자 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한보건협회